

## 1.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지며,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구원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어떤 곳,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궁금한 천국,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 천국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하늘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하나의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하늘. 구름이 있고, 별이 있고, 우리가 매일 보는 공간입니다. 이 물리적 공간을 하늘(sky)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sky) 말고 또 다른 하늘(haven)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뜻하는데요. 이 공간을 우리는 "천국" 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간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어서 굳이 어떤 시공간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공간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시공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야 했기에 "하늘"이라는 말을 갖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늘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말이죠. 하늘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넓고, 높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 우리들의 상상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하늘 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시공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에 그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나 은유가 필요했습니다. 시공간에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하늘이란 말은 그런 보편성과 초월, 높음과 넓음, 광활 함, 어디나 다 있는, 그런 우리의 상상을 은유로서 표현 하고 있듯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기에 적절한 표현이 되기에 하늘의 메타포(은유)를 가져와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그럼 실제 공간이 아니라면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천국(天國)이란 말은 ‘하늘 천(天)’+‘나라 국(國)’, 곧 하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라 그러면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하늘로 표현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국민도 해결됐기에 우리는 주권이라는 말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시의 나라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주권은 지금의 주권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주권은 왕의 다스림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라는 왕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곧 곧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영향력의 범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우주 어느 곳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공간이 아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곳이 바로 하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나는 지금까지 “천국”을 주로 어떤 모습으로 이해해 왔나요? (죽음 이후의 장소?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핵심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라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느껴지나요?  
→ \_\_\_\_\_
-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평안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_\_\_\_\_
- “천국을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좋은 곳으로만 이해하면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천국)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나눠 본다면?  
→ \_\_\_\_\_
-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요?” 대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

문으로 바꾸어 묻는다면, 그 대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나에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왜 중요한가요?

→ \_\_\_\_\_

- 오늘 내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는지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 \_\_\_\_\_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저는 때로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렵고, 천국이란 말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핵심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게 하소서. 제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며 평안할 수 있게 하소서. 천국은 단지 죽은 후의 세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는 주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